

Robert Yarbrough 박사, 목회서신, 세션 12, 디도서와 디도서 1장

© 2024 로버트 야브로(Robert Yarbrough)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목회서신에 대한 가르침과 목회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가르침을 전하는 로버트 야브로 박사(Dr. Robert Yarbrough)입니다. 12회차, 디도 서론, 디도서 1장입니다.

우리는 목회 서신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며 나는 이것을 목회 지도자와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교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디도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며 시작 하면서 디도서의 주요 구절 중 하나를 읽고 싶습니다. 이 구절은 매우 실용적인 내용,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방식을 결합할 뿐만 아니라 디도서의 기초가 되는 신학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크레타의 배경과 크레타 섬 사람들에 대해 많은 실질적인 조언과 논평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것은 신학적으로 약하고 주로 물류나 사람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행하신 일의 조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쾌락에 종노릇하였었다는 것을 읽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악의와 시기, 미움과 미움 가운데 살다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시매 우리를 구원하셨느니라.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성령으로 중생과 새롭게 하심의 씻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은 믿을만한 말입니다.

이 디도서 강의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릴 때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선택적으로 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당신의 아들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나아와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감사드리며, 이 강의 전체에 그 말씀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읽은 내용은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모든 말씀과 마찬가지로 신뢰할 만한 말씀임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동안 당신의 좋은 손에 우리 자신을 추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특히 디도서에 대한 몇 가지 소개 노트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목회서신과 저자 문제 등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구체적으로 디도에 관해 우리는 디도서의 목적을 다음 구절에서 봅니다. 5. 바울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말한다.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에서 디도를 격려하고 그를 더욱 깊이 굳게 세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도자를 임명하고 지도자를 훈련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1장 16절에 보면,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들이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며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필요와 그레데에 존재하는 문제 요소들을 해결하고 싶어합니다. 바울의 고민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서신서를 모두 읽을 것이므로 모든 구절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잠시 후에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하위 그룹을 가지려면 군대를 생각하면 강력한 전투 유닛을 원한다면 좋은 장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잘 배우기를 원한다면 훌륭한 교사 팀이 필요합니다.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지도자에 대한 높은 표준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디도서가 하는 일 중 하나는 교회의 리더십에 필요한 자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디모데전서 3장과 평행합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기독교 가르침이 기독교인의 의식에 스며들어 기독교인의 의식과 행동에 스며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화면에 있는 모든 단어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장에서 모든 연령층과 성별 모두가 특별히 다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의 마음과 기독교인의 삶의 변화의 필요성을 훈련합니다. 이는 일종의 종교적 오버레이나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매우 근본적인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 의해 진실로 주장되는 사람들에 의해 영예를 얻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문이 어떻게 이 실제적 관심을 활용하여 디도서의 목회 서신이 우리가 가정 문서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문화에 적응하고 받아들여지며 거부되지 않도록 행동을 제시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것의 근거와 그가 촉구하는 행동을 모두 연구할 때, 이것은 실제로 문화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가정법이라는 말을 듣고, 이것이 가정의 규칙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로, 저는 가정의 코드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신약성서 연구의 신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만약 여러분이 2장의 방향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초, 성육신과 십자가에 못박히심, 중생의 씻음과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연구했다면, 우리는 혁명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그리스도의 초림의 은혜가 혁명적인 삶을 고취시킨다는 점이며, 또한 교회의 구약성서 유산,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교회의 종말론적 운명, 이 모든 것이 함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매우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방법. 우리가 방금 읽은 또 다른 관심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이전 거듭나지 못한 상태를 알고 있고,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만하지도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다르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월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그리고 그들이 당신이 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르게 살고 있다면, 글썄요, 그게 더 나쁜 방식보다 낫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장점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자비,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것에 기초합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논쟁하는 자가 복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갈등이나 쓸모없는 논쟁이 아닌 지점에서 갈등이 필요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피하고 디도를 지키고 기독교 지도자들이 비생산적인 논쟁에 빠지지 않도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디도서 전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동하는 사람, 변화된 행동의 사람이 되라는 요구를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 강조되어 여러분은 그것이 도덕률 폐기론적인 사회적 경향, 즉 사회가 불법적이고 규칙이나 치안이 존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을 가리키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행하면서 그것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 눈에 띄고 배척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행동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처럼 산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보고 당신에게 벌을 줄 것입니다. 선행에 대한 부르심, 삶을 변화시키라는 이 부르심이 디도서에서 그토록 두드러지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 점을 탐구할 것입니다. 티투스는 어디에 있나요? 음, 티투스는 크레타 섬에 있습니다.

크레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는 Google 지도를 보면 지중해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크레타 섬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리스 구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가 저기에 있고, 터키가 저기에 있고, 이탈리아가 저기에 있고, 로마가 저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섬은 북쪽으로 에게해가 있고 그 주위에는 지중해가 있는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는 북아프리카입니다.

크레타가 있던 곳이 바로 그곳이고, 티투스가 있던 곳이었습니니다. 그 섬은 3,000평방 마일이 넘고 지도에서는 매우 작아 보이지만 오늘날에는 백만 명도 안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꽤 큰 주인 몬타나 주보다 크레타 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고대 미노스 문명의 본고장이자 그리스 신화에서는 크레타를 미노스 왕, 테세우스가 죽인 미노타우로스가 있던 미궁과 연관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 그리스-로마 사고 방식의 유명한 장소였습니다.

구약성서에서 그레데는 신명기와 예레미야에서 캅토르 와 연관되어 있다. 아모스는 그곳을 블레셋 사람들의 기원지라고 부릅니다. 이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모스에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 섬은 문화적 연관성과 정체성이 풍부했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 로마에 의해 정복되었고, 로마인들이 북아프리카로부터 크레타를 통치했기 때문에 북아프리카 행정구역의 일부였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크레타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레데로 가지 않으셨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분명히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기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초기 기독교 선교에 관한 가장 위대한 작품은 Eckhart Schnabel이 쓴 The Last Generation에 등장했습니다.

두 권의 두꺼운 책이 초기 기독교 선교라고 불리며, 제2권은 바울과 초대 교회입니다. 그 책의 1284페이지에서 슈나벨 박사는 크레타 섬에 대규모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세기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순절 날에 그레데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순례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1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 개인 중 일부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유대교로 개종했을 수도 있고, 둘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 소식을 크레타 섬으로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크레타 섬에서 서기 30년대 초나 서기 3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이자 슈나벨 박사는 이것을 제안합니다. 그는 크레타 섬으로의 선교가 오순절 무렵과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개종한 초기 유대인 기독교 선교사들에게는 논리적인 프로젝트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레데에 갈 수도 있었고, 그레데에도 회당이 있었고, 계속해서 회당에 가서 메시아가 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0년대 후반이나 40년대의 교회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제안은 50년대 후반에 사도행전 27장에서 처음으로 로마로 가는 동안 그레데에서 증거한 바울의 증거가 초기 교회를 형성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 그는 풀려난 뒤에 그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우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의 첫 번째 투옥에서 AD 63년경에 풀려났다면 그 섬을 방문하여 그 섬의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크레타에서 사역을 확장할 수 있었을 것이고, 바울은 서부의 니코폴리스로 여행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는 디도서 3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고 교회 창립에 대한 확실한 지식도 없지만 바울이 목회자를 세우려는 목적으로 서기 60년대에 디도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면 그것은 장로를 훈련하고 임명하는 일은 교회가 설립될 때 일어나는 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미 10년 이상 존재했을 것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이 끝날 때 셀 그룹을 설립하고 일단 우리에게 이러한 그룹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장로를 임명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글을 쓴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수단에 의해 설립된 것이 그럴듯합니다. 이제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다.

바울과 디도가 연합할 때 교회는 30년이 되었을 수도 있지만, 개척된 후에 정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시작이 있었지만 너무 심각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교회가 시작된 진리에 대한 열심을 새롭게 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촉발할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AD 60년대에 교회가 2세대에 이르렀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교회는 처음에는 흥분하다가 10~20년 후에 돌아가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름만 기독교인인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명목주의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바울이 디도에게 제시한 목회자 훈련의 지상적인 활동을 설명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일종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교회 안에 반역과 기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를 읽으면 좀 복잡해집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래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서 대답은 '예'입니다. 한동안 그곳에 있었던 교회들이 복음 메시지와 복음 메시지를 실천하는 방식을 잃었기 때문에 재부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크레타 섬이나 그 주민들에 대해 그들이나 그들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더 많이 말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디도서와 내가 언급할 다른 것들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곳이 실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주목할만한 존재였으며, 바울 시대에 그곳에 있었던 활기 넘치는 마을과 도시의 유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티투스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디모데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성서에서 디도에 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약성경에 14번 나옵니다.

목회서신에는 이 중 단 두 가지만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디도서 1장 4절에서 그에게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끝부분에서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언급은 디도가 바울의 생애 말년에 바울과 함께 활동적인 동역자였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과 관계를 맺은 것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 생각에는 AD 40년대 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회심과 사역에 대해 말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기둥들과 의논할 때, 내가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으며 디도도 데리고 갔다고 말합니다. 이는 서기 47년경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기둥들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의 목사들인 야고보, 베드로, 요한, 디도가 그곳에 있었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방인 신분이 문제가 될 만큼 바울의 측근들과도 가까웠습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나와 함께 있는 디도도 헬라인이면서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초기 구절을 보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을 슬그머니 발견한 거짓 신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폄하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메시야로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유대교를 따라야 하고, 식단을 바꿔야 하며, 유대 민족의 전통을 준수해야 하며, 남자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도는 이러한 잘못된 신학적 이해와 부적절한 요구에 맞서 싸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잠시도 저희에게 굴복하지 아니한 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에게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

15장을 읽어 보세요.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야고보와 바울, 베드로와 바나바와 예루살렘 교회는 모두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완전한 수용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할례와 유대 음식법을 받아들이고 1세기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전통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이 유대인 관습, 특히 식이 요법과 할례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는데, 이는 당시 유대인 유산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여전히 전 세계에 걸쳐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디도서를 읽을 때 거짓 신자와 복음 교육에 대한 유대인 기반의 도전과 같은 동일한 역학 중 일부가 디도서에서 볼 수 있었고 거의 20년 전인 갈라디아서에서 예상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다른 신약성경에서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지 거의 10년이 지난 고린도후서에서 디도 클러스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디도는 바울과 고린도 회중 사이의 협상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는 방향이 아닌 그들의 복음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고린도 회중을 납치하려는, 바울이 거짓 사도, 슈퍼사도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과 불안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와 그곳 지중해에 있는 로마 제국의 중앙 부분에서 수년에 걸쳐 바울이 사역한 부분은 이방인 신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별로 부유하지 않았고 실제로 그들 중 일부는 매우 가난했지만 그들은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인지 의심하는 유대 신자들에게 다시 가져오기 위해 모금을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몸이 유대인 지체를 포함한 몸의 모든 지체를 존중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에 걸쳐 돈이 쌓이고 마침내 그 돈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보안상의 이유와 또한 돈이 그곳에 도착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이방인의 여러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는 돈 관리를 감독하기 위해 바울과 함께 여행할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돌아가서 우리가 바울과 함께 여행했기 때문에 돈이 그곳에 도착했고 돈이 전달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 타이터스는 이 경호원과 대표자들의 사절단의 일원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고린도인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디도는 이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고린도인들 사이를 오가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썼고, 여행 중이었으며, 동시에 멀리 있는 고린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 저곳을 오가며 택배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티투스였습니다. 우리는 디도가 바울을 위로했다는 기록을 읽습니다. 디도야, 바울은 새 힘을 얻었다.

그는 고린도인들의 반응에 기분이 좋아졌고, 티투스는 고린도인들이 컬렉션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촉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바울은 디도를 나의 동역자요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쓴 편지 중 몇 편이 있습니다. 물론 그는 디도를 편지의 공동 필자로 언급한 적이 없지만 여전히 그들은 동역자요 동역자입니다.

디도는 바울과 같은 발자취와 바울과 같은 정신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높은 칭찬입니다. 디모데에 대한 만큼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높은 칭찬입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 바울의 생애 말기에 쓰여졌다면 그는 거의 20년 동안 다양한 환경에서 사역 경험을 쌓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초보자는 아니었지만 바울이 생각한 사람은 실행에 옮길 수 있고 그의 이름이 붙은 이 짧은 서신을 구성하는 간략한 설명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정도까지 그리고 큰 위험을 안고 혼자 있었던 적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맡은 가장 큰 임무였을 수 있으며 따라서 디도서는 바울이 사용했고 디도가 실행을 관찰했지만 아마도 완전한 행정적 책임을 갖지 못했던 많은 원칙을 구체화하거나 결정화합니다. 그 자신의.

따라서 디도서는 디도가 수년에 걸쳐 관찰했지만 아마도 자신의 행정을 담당할 적이 없었던 것들을 요약하고 강화합니다. 이것은 또한 편지의 간결함을 설명할 수 있으며 여기서는 바울이 관용적으로 썼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골로새서나 로마서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어휘는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디모데전서와 후서처럼 조금 더 복잡합니다.

사용되는 다소 독특한 어휘이지만 그와 디모데는 두 가지를 공유했습니다. 유대인의 유산과 또한 그들은 그리스어 원어민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매우 큰 어휘를 사용하는 매우 총명한 그리스어 원어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디모데전서와 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Titus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가 Titus에서 사용하는 단어는 다른 편지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와 Titus의 관계와 둘 다 그리스 지역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그는 그곳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그곳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 사이에 솔직하고 간결한 대화가 있는 이유입니다. 이전 강의를 보신 분이라면 제가 신약성경 서신에 나오는 단어에 관한 통계학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말하는 내용에 매료되었고, 그들이 가장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디모데전서와 후서, 그리고 사실 바울의 모든 편지와 다른 신약성서의 서신서에서와 같이 그 편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도서에 나오는 주요 의미있는 단어들의 도표입니다. 그것은 의미있는 단어인 not and, the, but입니다. 내 생각에 이것들은 모두 명사이다. 동사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동사는 형용사의 형태로 사용되지만 이것들은 거의 모두 명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선한 일이나 선한 일에서처럼 일이나 행위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항상 대문자 s와 함께 사용되는 또 다른 용어, 즉 구세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람이나 사람이 있고, 선, 말, 선에 대한 또 다른 말이 있고, 이는 목회서신 전반에 걸쳐 관심사인 가르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와 그리스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8번부터 8번부터 13번까지 이 단어들은 모두 같은 빈도로 4번 나타납니다. 예수는 네 번이고 그리스도도 네 번입니다. Grace도 마찬가지로이며

숫자 11은 이 목록에 있는 유일한 동사이지만 분사 형태로 사용됩니다. 형용사적으로 사용됩니다. 건강하다는 뜻이고 건강한 교육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건전한 교리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는 은유적으로 강하거나 건전하거나 건강해야 하는 가르침을 가리키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터(soter)는 하나님에 대해 세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구세주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세 번 언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이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일단 그것은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킨다. 일단 그것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다음 한 참조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구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avior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이를 약간 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2서는 다릅니다. 그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디모데전서, 둘째 디모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 구약성서에서 매우 흔하고 그와 디모데는 이 구약성서, 즉 유대인의 유산을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이터스는 유대인으로 자라지 않았고, 구세주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어떻게든 모든 것을 구원할 하나님의 형상과 훨씬 더 연관되는 로마 세계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도의 유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디도가 크레타에서 사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주님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원자 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이며, 이 단어를 하나님과 함께 반복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방식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는 이 단어를 예수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반복적으로 사용할 것이므로 이것이 디도가 예수의 신성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입증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자를 구세주라고 부르시기 때문이고, 성경적 종교의 논리에서는 여러 구세주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알리기 위해 구원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일이라는 단어가 kalos와 함께 4번 등장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또한 좋은 것을 의미하는 agathos 라는 단어와 함께 두 번 나타나는 것을 의미 하지만 kalos는 아름답거나 바람직한 측면에서 더 미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Agathos는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도덕적 의미를 조금 더 가질 수 있습니다.

디도의 독특하거나 거의 독특하거나 적어도 독특한 특징 중 하나를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관찰은 모든 바울 서신의 규정에 그의 이름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일종의 인사말이 있고 수신인이 나열됩니다. 바울이 이 관례의 사용을 맞춤화했지만 이는 헬레니즘 편지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로 시작하여 정경 순서를 따라가는 왼쪽 열에서는 모든 바울 서신의 시작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바울로의 모든 서신은 이렇게 시작하며 디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래에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놓았으니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갈라디아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보내는 수신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하기오스(hagios) 또는 하기오이 성도(hagioi saints)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NIV는 번역해도 괜찮은 거룩한 사람들을 번역합니다. 디모데에게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가 있고, 디모데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공통된 믿음을 따르는 나의 참된 아들인 디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료인 빌레몬에게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십시오.

따라서 교회 그룹 사람들에게 바울이 있지만 바울의 이름과 수신인 사이의 그리스어 단어 수를 세어 보겠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디모데 편지를 보면 디도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14개의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단어 디모데후서 13개의 그리스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데살로니가서를 쓸 때 바울과 데살로니가서 사이에는 네 단어만 있었지만 로마서에는 71단어가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6~7절 뒤에 로마서가 나오는데 그의 이름과 로마서 사이에는 거의 조직적인 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바울과 갈라디아서 사이의 25단어가 약간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Titus는 그의 이름과 Titus에게 편지를 쓸 때 사이에 많은 말을 하는 46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단어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바울의 편지에서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강화하고 싶은 정보가 여기에 많이 있고 아마도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서도 강화되기를 원하는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

그는 타이터스가 이것을 가져가기를 원하며 이것이 복사되어 보내졌거나 이것이 타이터스에게 전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타이터스는 그곳의 회원이나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데 그것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크레타에서 티투스 자신의 리더십 훈련을 사용하기 위한 편지의 시작 부분에 신학적인 편치가 추가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서 1장에 이르렀고 나는 장 시작 부분을 녹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 강의에서도 제목에 있어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처럼 제목이 시작되고 나는 NIV의 제목을 따릅니다. NIV의 제목에서 이것이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서두를 지나고 나면 최종 설명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제목에 good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것을 사랑하는 장로들을 세우시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책망하시느니라.

2장에서는 복음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3장은 선을 행하기 위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많이 있으며 편지를 살펴보면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바울과 나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단어들을 황폐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구세주가 디도의 수사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한 Savior라는 단어를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물론, 이 단어는 정확히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항상 대문자로 표시됩니다.

디도서에는 “하나님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지식을 더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밑줄을 설명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속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니 이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니 이제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내게 부탁한 전도로 자기의 정한 기한에 따라 이 영생을 나타내셨느니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단어에 대한 몇 가지 관찰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디모데전서와 2서는 다릅니다. 왜 그가 여기에서 자신을 종으로 부르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사도이기도 한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날 바울은 자신이 둘로스이자 사도였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전 강의에서 지적했듯이 그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을 높이 평가하지만 사회에서는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자주 그리고 극렬하게 반대했다는 사실은 교회의 첫 수십 년 동안에는 아직 모든 것이 확립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교회가 어떻게 운영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으며 오늘날의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 권력 투쟁이 있었던 것처럼 초기 교회에서도 매우 극심한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몇 분 전 사도행전 15장과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초대교회가 존재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간주되기 위해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여전히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그것은 전체 세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지금 으로부터 거의 2,000년의 교회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는 초대교회의 성장통과 초대교회가 겪었던 갈등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때, 누군가가 옳고 진실하며 하나님 예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거나 바울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더 고귀한 용어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고대 세계의 사도들, 그 당시의 사도들은 그들의 이름이 존경받을 것인지 아니면 진흙탕에 빠질 것인지에 대해 배심원단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서신서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그들이 반대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그들에게 진흙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회중의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잃어버린 세상의 종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종이 된 신분은 사실상 그들 모두가 순교했다는 사실로 입증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자연사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순교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역사적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밑줄 친 부분으로 들어가겠지만 그는 사도이고 종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기록하고 있으며 영생에 대한 확실한 지식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여기서 희망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아직 이루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으로 인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영생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은 때가 차매 그 약속을 밝혀 주셨고, 복음 전파를 통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설교하러 오셨어야 했지만 여기서 그는 멈추지 않고 성육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버지 우편에 계신 아들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는 나중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언급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가능해졌고 그 설교는 나에게 맡겨졌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세계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이고 그레데는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에 관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계획, 복음을 받아들임에 대한 보상, 즉 영생, 교회론,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 세계에 전해졌는가에 대한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임명을 통해서입니다. 사도란 무엇이었는가? 글쎄, 그들은 하인이었습니다.

이 46개의 그리스어 단어에는 풍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진정한 아들인 디도에게 말할 때 이것은 그가 디모데에게 묶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는 그것이 그들 사이에 있었던 친밀함, 그들이 공통의 신앙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있었던 유대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언어로서, 오래전 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인간의 타락 이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안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로마서 4장과 같은 곳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유산과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임을 설명합니다. 그는 디도가 이방인을 포함 하여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공통된 믿음입니다. 유대인인 폴의 집이에요. 이방인인 디도입니다. 그것은 역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믿음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글을 쓸 수 있고, 바랄 수도 있고, 분배할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을 베푸실 수 있는 이유는 은혜와 평안이

제물을 위해 거기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것을 얻으셨느니라. 너무나 많은 희망과 신학이 있고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지의 충만함에 대한 확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편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 단어와 관련하여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으로 인도하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증진시키는 이 개념을 더 깊이 파고들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섬김과 사도직의 두 가지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디모데후서에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을 해석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았으니 이는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과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번역된 것과 같은 동일한 단어로 신자들을 선택했다고 부릅니다. 이 명칭은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의 후손의 부르심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선택에 고대부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이에 대해 읽을 수 있고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언어와 사람들의 지위를 확증합니다.

예수께서도 예수 시대에 추종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랍비들은 추종자들을 부르지 않고 와서 스스로 붙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서에는 예수께서 밤새도록 기도 하시고 다음날 일어나서 12명을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대한 매우 사실적인 어떤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그분과의 친교, 그분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의 추종자들을 폭넓은 성경적 관점에서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말하든, 아브라함을 말하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더 기본적인 개념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사람들입니다. 손가락을 튕기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램프를 문지르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특히 부패가 많고 사람들이 많은 신을 믿었던 고대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든 아브라함에게 오셨는데,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디도서에 쓴 내용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장하고 확고히 할 것입니다.

바울의 종 됨과 사도직의 두 번째 목표는 경건으로 인도하는 진리에 대한 지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지식은 경건에 따른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작위적인 경건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여기에는 표준이 있으며 이러한 경건함은 우리가 이미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에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동일한 성품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천적으로 표현되는 경건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형식적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관찰한 것은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신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지만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적인 지식이나 사색적인 지식과는 대조적으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사람들이 항상 배우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일상적인 종교적 성향과 그들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 관계를 수행하는 방식 및 행동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명합니다.

편지 시작 부분에 대한 이러한 실질적인 강조는 바울이 서신 후반부에서 행함을 강조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나는 바울이 그의 사도적 지위와 그의 사도적 메시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한 논쟁적이거나 변증적인 입장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진리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진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글을 쓰고 있으며, 그가 해결해야 할 준진리와 허위의 수렁에 빠져 있는 타이터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사랑하는 장로들을 임명하는 다음 섹션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말한다.

이제 장로가 아내에게 흠 없이 충실해야 하는 몇 가지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가 신앙을 갖고 난폭하고 불순종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남자, 이것이 가정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 가족이 누군가의 집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기독교 결혼을 하는 것과 감독자 때부터 부모의 종교가 자녀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감독자인 장로가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거만하지 아니하며, 급히 성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이득을 추구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을 사랑하며, 절제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믿음직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교훈과 올바른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삽화입니다. 그 사람의 종류와 자질에 대한 매우 짧은 특성입니다. 그의 아내에게 충실하다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그가 남자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디도가 주목해야 할, 그레데 섬에 설립되어 교회로 성장하는 소그룹인 셀 그룹의 리더십 훈련을 위해 강조해야 할 사람의 자질입니다. .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의 모든 절을 분해하여 살펴볼 수 있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장로가 흠이 없다는

개념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에서 논의할 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합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을 집사에게 사용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목사에게만 사용하지만 이는 확실히 어느 교회에서나 경건한 리더십의 자격 조건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는 흠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더 깊이 파고들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고 바울이 7절에서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봅시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글쎄, 그 단어는 죄가 없다거나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범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훌륭한 사람을 의미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평론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삶에서 범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추종자들이 미움을 받을 것이며 적어도 일부 사람으로부터 반대를 받을 것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 대해 좋게 말할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같은 말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박해는 잘못이나 잘못에 대한 비난을 의미하며 흠이 없는 것을 완벽하다고 정의하며 모두가 당신이 얇게 썬 빵 이후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은 사도적 신앙과 실천에서 벗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디도가 옹호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의 현실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아무도 바울과 디도가 그들을 반대한다고 해서 비난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확신하는 이교도와 확신하는 유대인을 위해 다른 견해와 관행을 원한다고 확신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옹호하는 사람은 누구도 흠이 없다고 여겨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사용하는 신약성서의 다른 두 구절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완전하다거나 그들이 결국 현재의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인들에게 의문을 제기하고 많은 오류를 깨닫게 하는 편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고 믿음을 통한 의를 소유했으며 이 믿음을 통한 의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현재의 무죄를 확신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어떤 경우에는 범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성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충분하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육체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셨음을 말한다. 무죄라는 말이 있군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바울이 그들에 대해 비판적이기 때문에 그들이 비판을 초월하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암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며 복음 메시지를 받았고 그것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에게 흠 없는 상태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 후보자로서 흠이 없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주는 것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기독교 방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는 독자들이 신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상태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암시하는 윤리적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으며, 바울도 마찬가지로 디도에게 목회 후보자들은 강한 징표를 보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삶을 경건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신성한 은혜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건하게 헌신하고 참된 믿음과 열매 맺는 실천으로 성장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며 열매를 맺으며 그분을 따르는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우리에게 대해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수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질투하거나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비난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있다면 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쳐다보며 좋게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자녀를 다루는 방식을 승인하지 않거나 그들의 성경 번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전기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전기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신학적으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는 디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그런 다음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말입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에게 충실하고 술고래에게 충실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많은 지표를 제공하며, 실제 생활에서 흠잡을 데 없는 것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종류의 것들을 제공합니다.

글쎄요, 이 강의는 꽤 오랫동안 진행되었고 우리는 많은 소개 자료를 포함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멈추고 다음 강의에서 1장의 나머지 부분을 선택하고 계속해서 2장을 마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목회서신에 대한 가르침과 목회 지도자들과 추종자들을 위한 사도적 가르침을 전하는 로버트 야브로 박사(Dr. Robert Yarbrough)입니다. 12회차, 디도 서론, 디도서 1장입니다.